

제3.1호

행정 명령

재난 비상사태 선언 연장

2019년 11년 20일 발령한 행정명령(Executive Order) 198호에 의거하여, 대규모 홍수와 광역 침식, 수해로 인해 주택 및 기타 거주 구조물, 사업체, 공공 인프라에 대규모 피해를 입은 카유가, 제퍼슨, 먼로, 나이아가라, 올리언스, 오스위고, 세인트 로렌스, 웨인 카운티가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었기 **때문에**,

2021년 7월 6일 발령한 행정명령 211호에 따라, 총기 폭력으로 인하여 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기 **때문에**,

따라서 이제 **KATHY HOCHUL** 본인은 뉴욕주의 주지사로서 헌법 및 뉴욕주 법령을 기초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행정명령 198호, 211호에 명시된 주 재난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행정명령 198호부터 198.19호, 211호, 211.1호까지에 포함된 조항, 조건 및 중지를 2021년 11월 22일까지 계속 연장한다.

2021년 10월 23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 
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한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